

「해외지방자치제도 비교 견학」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보고서

연 수 개 요

- 연수기간 : 2010. 10. 18 ~ 10. 23(4박6일)
- 방 문 국 : 몽 골
- 연 수 단 : 12명(의원8명, 공무원4명)

2010년 11월 일



구 미 시 의 회

공무국외여행 개요

1. 연 수 국 : 몽 골

2. 연수목적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역량을 드높이기 위하여 해외정보 및 자료수집과 지방의 국제화추세에 따른 다양한 문화체험으로 지방자치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함.

3. 연수기간 : 2010. 10. 18 ~ 10. 23(4박6일)

4. 보고서 작성자 : 허 복 의원 외 11명

5. 연수자 인적사항

연번	소속위원회	성 명	연번	소속위원회	성 명
1	구 미 시 의 회	허 복	7	산업건설위원회	윤 종 호
2	산업건설위원회	김 태 근	8	"	임 춘 구
3	의회운영위원회	이 수 태	9	전 문 위 원	주 성 영
4	산업건설위원회	강 승 수	10	직 원	임 춘 옥
5	"	김 재 상	11	"	최 은 희
6	"	김 정 곤	12	"	문 수 진

목 차

I. 서 론

1. 연수의 배경
2. 연수세부내용

II. 본 론

1. 몽골 소개
2. 주요업무 수행내용
3. 주요방문지
 - 울란바타르 시청 및 의회
 - 울란바타르 마사협회
 - 울란바타르 대학교
 - 육성 마 사육 현장
 - 기타

III. 결 론

IV. 수집자료 및 참고

- 외교통상부 사이트 www.mofat.go.kr

I. 서 론

1 연수 배경

- 우리시 승마장 건립에 따른 말(육성)관련 사업으로 농가소득 향상과 시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승마육성에 전통깊은 중앙아시아 몽골지역의 친환경 농축산업 정책과 승마장 관련시설을 비롯한 교육, 문화관광, 축산 분야 녹색정책 등에 대한 사례를 몸소 체험하여 향후 의정활동 및 시정에 반영코자 함.
- 울란바타르 시청 및 의회를 방문하여 육성마 지원 시책과 의정활동의 우수성을 우리시와 비교 시찰

2 연수세부 내용

- 기 간 : 2010. 10. 18(월) ~ 10. 22(금) 4박 6일
- 참여인원 : 12명(의원 8, 직원 4)
- 세부일정

일 자	출발지	도 착 지	방 문 지	업 무 수 행 내 용
제 1 일 10.18(월)	인 천 (19:10)	울란바타르 (11:30)	• 울란바타르 호텔투숙	• 울란바타르 도착
제 2 일 10.19(화)	울란바타르	울란바타르	• 울란바타르 시의회방문 • 울란바타르 시청방문	• 상호발전을 위한 운영실태 상호교류 및 시설견학
제 3 일 10.20(수)	울란바타르	울란바타르	• 몽골 마사협회 방문	• 몽골마사회 운영 현황 및 우리시 승마사업과 상호 협력관계 논의
제 4 일 0.21(목)	울란바타르	울란바타르	• 울란바타르 대학방문 • 이태준열사 기념공원	• 몽골 최고의 사립대 학교의 운영 현황 및 한국인 총장과의 교육 정책에 대한 토론
제 5 일 10.22(금)	울란바타르	울란바타르	• 몽골 목축현장 견학	• 육성마 운영실태 청취 및 현장 시설견학 ※ 윤중호의원 울란바타르 대학교 특강실시
제 6 일 10.23(토)	인 천 (06:00)	비행	• 인천국제공항 도착	• 해산

II. 본 론

1 몽 골 (蒙古, Mongolia) 소개

중앙아시아 고원지대 북부에 위치한 나라(동경 105°00", 북위 46°00)



<국기>



<국장>

【 일 반 개 요 】

- 수도 : 울란바타르(Ulaanbaatar)
- 인구 : 약 273.7만명
- 면적 : 157.7만km²(한반도의 7.4배)
- 기후 : 건조·냉대 (연평균 -2.9℃) 기후
- 언어 : 몽골어
- 종교 : 라마교(90%), 이슬람교(5%), 샤머니즘, 그리스도교 (5%)
- 화폐단위 : 투그릭(Tugrik)
- 지형 : 평균해발 1,600m, 국토의 40%가 사막, 10%가 산림지역
- 독립일 : 1921.7.11
- 국가선포일 : 1924.11.26

【 정 치 】

○ 정치 정세

세계 2번째 사회주의국가였던 몽골은 1990년 脫蘇 민주화운동을 통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 후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개혁·개방·민주화를 빠르게 진행

- '90.2 몽골최초의 야당인 몽골 민주당 탄생
- '90.3 집권 인민혁명당은 헌법 개정을 통해 일당독재를 포기함으로써 다당제 정당정치의 기초를 마련
- '92.1 신헌법을 제정, 3권 분립을 기초로 대통령 직선제 (임기4년)와 국회 단원제 및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자유 시장경제체제 확립

이후 전통적 집권여당인 인민혁명당과 민주당 중심의 민주연합 간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민주 정치 발전 도모

- '96.6 민주연합, 총선 승리
- '97.7 인민혁명당, 대선 승리
- '04.6 여·야 연립내각 구성

- 정 체 : 민주공화제(1992, 신헌법 발효)
 - 의원내각제적 성격이 강한 이원 집정부제
- 주요지도자
 - 대 통 령 : T. Elbegdorj(엘벡도르지)
 - 총 리 : S. Batbold(바트볼드)
 - 국회의장 : D. Demberel(데미렐)
 - 외교장관 : G. Zandanshatar(잔단샤타르)
- 주요정당(08.6.29 총선 결과)
 - 인민혁명당(총76석중 45석)
 - 민주당(제1야당, 28석)
 - 기타 : 3석

【 군 사 】

- 18세~25세까지의 남, 여 모두 1년간 복무해야 하나 병역세로 한화 70만원만 내면 병역이 면제된다.
- 몽골군은 몽골 국군(육군과 육군항공대가 통합) 7,000여명과 국경경비대 6,500여명, 내무 보안군(전투경찰) 15,000여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 내무 보안군의 존재 이유는 1992년헌법 개정으로 다당제 민주주의 시행과 시장경제 채택으로 정국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 국경경비대는 소련의 위성국 시절 군을 대신하여 소련과 대치 중 이었던 중국에 대비하여 국경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현재는 가축이 러시아나 중국국경을 넘어갈 경우 다시 끌어 오는 게 주 임무가 되었다.

○ 국방예산은 약 2.2%정도로 세계평균보다 약간 낮다.

【 경 제 】

○ 경제 정세

몽골 경제는 1990년초 사회주의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한 후 꾸준한 시장경제 발전을 실현,

私有化的 획기적 진전을 통해 2006년말 현재 총 32,400여개의 기업 및 법인 중 민간부문 기업이 27,200개로 총 83.7% 차지
최근 몽골 정부는 대규모 전략광산 개발과 활용을 통한 빈곤층 퇴치 등 민생고 해결, 인프라 확충, 지역개발 등 국가개발전략 실행 재원 확보에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 부여 중

※ 주요 수출품 : 동정광(26.3%), 금(17.6%), 석탄(16%), 아연(6.4%), 원유(6.0%), 캐시미어(4.8%), 철광석(4.5%) 등

※ 주요 수입품 : 육류(26.6%), 기계류 및 자동차부품(19.8%), 식료품(8.5%), 금속류(7.6%), 화학품(6.0%), 농산품(4.5%), 유리(2.4%) 등

○ 경제·통상

90년도 수교당시 271만불에서 2009년 對몽골 교역액이 1.7억불 ('09, 몽골통계청)로 급증, 한국은 몽골의 제3위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

※ 주요수출품 : 버스, 트럭, 승용차 등

※ 주요수입품 : 폴리브덴, 캐시미어 제품 등

- GDP : 약 41.9억불(1인당 GDP : 약 1,533불)
- GDP성장률 : -1.6%(물가상승률 1.9%)
- 실업률 : 27.7%
- 정부예산 : 세 입 : 17.0억불, 세 출 : 19.6억불
- 무역액 : 40.3억불, • 수 출 : 19.0억불, • 수 입 : 21.3억불
- 화폐단위 : Tugrik(1US\$=1,440Tg, '10년 2월)
- 주요자원 : 석탄, 동, 폴리브덴, 텅스텐, 형석, 아연, 금, 석유 등
 - 세계 10대 자원부국
- 외환보유고 : 약 11억불

【 역 사 】

아시아의 중앙 내륙에 있는 국가이며, 13세기초 징기스칸이 등장해 역사 상 최대의 몽골 대제국을 건설했으며, 동서여러 국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몽골제국이 멸망하고 남은 내륙 중앙부가 1688년 청(淸)에 복속되어 '외몽골'로 불렸다.

1911년 제1차 혁명을 일으켜 자치를 인정받았으나 1920년 철폐되었고 러시아의 10월 혁명에 영향을 받아 1921년 제2차 혁명을 일으켜 독립하였고 1924년 공화국이 되었다.

1924년 국호를 몽골 인민 공화국이라 함에 따라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다. 그 이후 구 소련의 영향력이 강화되었으며, 중소 국경 분쟁이 발생할 때 소련을 지원하였다.

1992년에 복수정당제를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변화, 공산주의 경제를 버리고 민주주의 경제를 도입했다.

【 교 육 】

- 몽골의 초중등학교 과정은 과거 11학년제에서 현재 12학년제로 변경하였으며 학기의 시작은 9월이다.
- 초, 중, 고등학교가 한국과 같이 별도의 학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초중고 통합학교로 운영하고 있으며,
- 학교이름은 국공립학교의 설립년도 순으로 제1번 학교, 제2번 학교 제3번 학교 등으로 표기하며, 사립학교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설립년도 순이 아닌 독립된 별도의 학교 이름을 사용한다.
-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까지는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대학교는 대학교, 기술학교, 직업학교로 구분하며, 대학교는 기능별로 분류한 종합대학교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 문 화 】

- 종교, 음식, 여가, 무용, 음악
 - 몽골인의 주된 종교는 티베트 불교(라마교)이며, 물고기를 먹지 않는 독특한 음식문화가 있다.

- 물가에 비해 급여수준이 너무 낮아 대다수의 몽골인들은 문화, 여가활동을 즐길 수 없는 형편이지만 발레나 연극, 극장 등은 보편화되어 있어 가족단위로 즐기는 편이다.
- 토요일을 “하가스 사잉 어더르(반쯤 좋은날), 일요일을 부그트 사잉 어더르(완전히 좋은 날)로 부를 만큼 주말을 즐긴다
- 몽골의 무용, 음악은 티베트불교와 유목생활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타삼(Tasam)춤은 악마의 영혼을 몰아내기위한 춤으로 전통적인 유목생활과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공산 정권시절에는 한때 금지되기도 하였다.

【 몽골과 한국과의 관계 】

- 수교 : 1990. 3. 26(북한과는 1948년 수교, 공산주의국가였으므로 우리나라는 수교가 늦어짐)
 - 1990. 6. 18 주몽골 한국대사관 개설
 - 1991. 2. 1 주한 몽골대사관 개설
- 교역현황(2009년, 몽골통계청) : 1.7억불
 - 수 출 155백만불, 수 입 14.8백만불
 - ※ 한국은 몽골의 제3위 교역상대국
- 對몽골투자(2009년말 누계) : 217백만불
- 무상원조(2009년말 누계) : 총 44백만불
- EDCF 지원 : 수교이후 총 8,390만불 지원
- 인적교류(2009년) : 방한 38,192명, 방몽 39,766명
- 체한 몽골인 : 30,771명, 체몽 한국인 : 3,000여명

○ 울란바타르 시청 및 의회 방문

- 운영실태 파악 및 상호교류 사항 협의와 시설견학
- 육성마를 위한 시정 및 의회 차원의 정책 청취

○ 몽골 마사협회 방문

- 몽골 마사회 운영 현황 청취
- 몽골마와 우리나라 승마 관련 사업과의 상호 협력관계 논의

○ 울란바타르대학교 방문

- 몽골 최고의 사립대의 운영 현황 및 몽골의 중장기 교육 정책과 한국인 총장과의 교육정책에 대한 토론
- 몽골에서 명문사립대학으로의 설립 및 한국어 과정 개설
- 한국어과 학생을 대상으로 특강실시 : 지도자의 리더쉽과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경제 강국이 되기까지 등

○ 몽골 육성마 목축 현장방문

- 육성 마 운영 실태 청취 및 목축시설 견학
- 육성 마 및 종마 개량을 위한 사육과 훈련과정 청취

○ 기타 시설 견학

- 이태준열사 기념관, 울란바타르 재래시장, 자연사박물관, 수하바트르 광장, 서울의 거리 등

【 울란바타르시청 및 의회 】

□ 울란바타르시 (면적 76.52km², 인구 104만명)

몽골어로 '붉은 영웅'이라는 뜻의 울란바타르(Ulan Bator)시는, 몽골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도시이며, 오르콘강의 지류인 툴라강 우안, 해발 고도 1,300m의 초원성고원에 위치, 기온은 여름에 27℃,



<울란바타르시 전경>

겨울에 -46℃까지 떨어져 연교차가 심한 대륙성 기후. 중국 지닝[集寧]에서 러시아 연방 울란우데를 연결하는 철도 연변에 있다.

1649년 초대 활불(活佛)이 라마묘(廟)를 창건한 이래, 몽골의 라마교 본산으로서 발전하였고, 18세기는 러시아·청(淸) 양국의 중계무역지가 되어 더욱 번창하였음. 1911년 외몽골의 독립과 함께 그 수도가 되었고, 1921년 혁명으로 옛 라마교 국가가 무너지고 공화국이 성립되면서 라마교적 색채는 거의 사라졌다.

1924년 울란바토르로 개칭하고 몽골의 정치·경제·문화면에서 새로운 중심지가 되고, 공업화는 1934년 러시아의 원조로 공업 콤비나트가 건설된 데서 비롯하며, 제2차 세계대전 후, 피혁·제화(製靴)·모직물 등의 공장이 중국·체코슬로바키아 등의 원조로 그 면목을 일신하였으며, 또한 식육·유제품·제분 등의 식료품공업 콤비나트가 러시아의 원조로 건설되었음.



문화시설로는 몽골 유일의 종합대학인 울란바토르대학과, 농업·의학 등의 전문학교, 사범학교 등이 있다.

몽골인의 전통적 주거인 파오[包]는 시가지에서 그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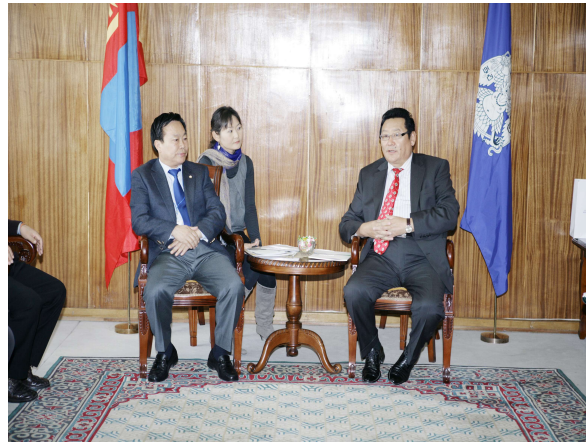
<시 총무책임자로부터 현황 청취>

그 대신 근대적인 건축물·노동자주택, 넓은 포장도로 등이 건설되어 청결한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 울란바타르시 의회

○ 일반 현황

- 의원 : 13명
 - 남 11명, 여 2명
- 구성원 현황
 - 조선(62%), 재선이상(38%)
- 연령
 - 28~30세(7%)
 - 31~40세(40%)
 - 41~50세(46%)
- 주석(1명), 부주석(1명), 대표(25명)
- 임기 : 4년(주민직선제), • 선거구 : 5개 선거구
- 정당 : 몽골 인민혁명당(80%), 민주당(20%)



<빌리기트 의장과의 대담>

○ 울란바토르 시의회 의장(빌리기트) 환영사

- 멀리서 방문해주셔서 기쁨, 두 나라 상호간 깊은 관계에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음.
- 울란바타르시는 서울시와 남양주시와 이미 자매결연을 맺고 있음.
- 구미시는 최첨단 전자산업도시로써 한국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고 알고 있으므로
- 양 시 상호 발전을 위한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고 친구도시가 되기를 희망
- 다음엔 구미시 의회를 공식적으로 초청하겠음.

○ 구미시의회 연수단장(의장) 답사

- 가슴 따뜻한 환영과 우정에 감사
- 우리시와의 의회운영정책을 비교하고, 상호발전을 위한 협력사항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함
- 우리 구미시는 인구 41만의 작년한해 370억불 수출한 대한민국 최대의 IT전자산업단지를 갖춘 도시이며

현재 5공단, 경제자유구역등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고

특히, 승마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시가 접목할 수 있는 내용과 울란바타르의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고자 함

【 몽골 마사협회 】

- FEDERATION OF MONGOLIAN HORSE RACING SPORT AND TRAINERS -



☞ 몽골 마사협회부회장과 의 면담

몽골 마사협회방문 기념 ☞



○ 운영 방침과 목적

- 몽골인의 경마 정책을 시행하고,
- 국가적인 경마를 널리 홍보하며,
- 말 숙련자들 및 기수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모든 경마 스포츠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 몽골 마사협회 역사

- 1995년 5월 25일 19지역의 221명의 대표자가 참가하여 시작
- 1995년 6월에 법무부에 등록
- 1995년 7월에 몽골 올림픽위원회의 멤버가 되었으며, 이것을 계기로, 국제 올림픽위원회의 올림픽헌장에 따라 스포츠 연합체로 신분을 얻었으며, 국가적인 경마 경주와 마사회의 RACING 정책 시행 및 권리를 얻었다.

※ 몽골은 정부에서 말을 담당하는 기관인 “부(장관급)”를 운영할 만큼 말을 아끼고 사랑하는 민족으로써 승마 전통적인 특징을 보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사협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총리가 협회장 직을 맡고 있을 만큼 국가적으로 관심이 많은 협회이다.

【 울란바타르 대학교(Ulaanbaatar University) 】



정문 표석

- 위 치 : 몽골 울란바타르
- 설립년도 : 1995년
- 학교발전내용 : 몽골에 최초로 외국인인 한국인이 1995년 전문 대학인 울란바타르대학(Ulaanbaatar College)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2년 2월 28일 명문 종합대학인 울란바타르대학교(Ulaanbaatar University)로 몽골정부로부터 승격을 받고 한국어 학과를 개설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격상시켰으며, 이홍순 이사장, 서정운, 김동엽 부이사장이 학교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고 있음.
- 학 생 수 : 약 2,800명
- 교직원 수 : 226명(전임교수 115명, 석좌 교수 2명, 객원 교수 20명, 직원 67명, 재단법인 이사 및 감사 22명으로 구성)

○ 학과 및 정원

- 인문대, 상경대, 공과대, 농과대, 의과대가 있으며, 입학정원은 약 780명이고, 학생 정원은 약 3,500명 울란바토르대학교 외 중·고등학교 1개(학생수 104명), 초등학교 1개 (353명)가 있음.

○ 특 징

-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에 대한 몽골 내 관심이 높아 한국 관련학과 설립
-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세워진 최초의 외국인 학교이자 미션 스쿨
- 몽골 최초의 졸업학점제, 몽골 최초의 장학 제도, 최초의 “한-몽 소사전”

- 설립 이념 : 울란바타르대학교는 국제적인 대학 수준의 교육을 지향하며, 몽골의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전인적인 능력을 지닌 성실한 지성인이 되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실천하는 인재를 양성함에 있다.

- 미 셴 : 수준 높은 기독교 교육과 선교, 국제 수준의 인재 양성, 섬기는 지도력 배양



최기호 총장님과 대담



기념품 전달



학교 방문 기념 촬영

※ 윤종호 의원 특강



<울란바타르대학교 경영학부 학생들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있다>

울란바타르대학교 최기호총장의 제안으로 다음날인 10월 22일 경영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2시간동안 「Fun Marketing」이란 주제로 한국경제와 IT산업의 중심지 구미경제 그리고 새마을 운동과 박정희대통령 등에 대해 강의하면서

한국인의 신명이 넘치는 해학이 풍부한 민족성을 바탕으로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국민들이 있었기에 지난 과거의 어려움을 잘 극복했고 지금 경제 강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 몽골의 주역이 될 학생여러분이 웃음과 용기를 항상 갖고 몽골의 수많은 지하자원과 한국의 기술력을 함께 미래를 열어간다면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족이 될 것이며, 우리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먼저 웃어준다면 세계는 우리를 주목할 것』이라며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남겨, 울란바타르대학교 총장으로부터 감사장과 학생들의 환호와 기립 박수를 받았다.

【 울란바타르 육성마 사육 농가 】

울란바타르 마사협회의 육성
마 목축농가를 방문하여 사육
환경 및 시설을 견학 함.
몽골말은 서양말에 비해 체구는
작으나 몽골기후에 맞게 튼튼함.



서양의 우수 종마와 몽골 암수를 통하여 우수한 개량 말을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보급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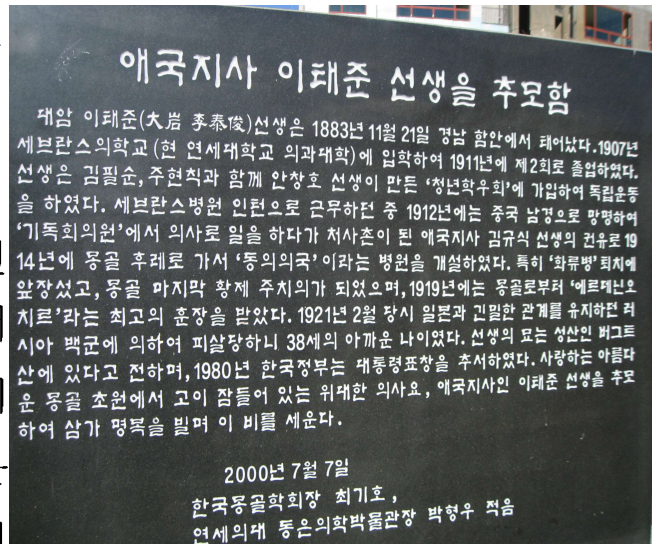
승마훈련 장면 참관 및 일반현황
청취 후 우리시 승마 사업 방향과
우리나라 환경에 접목시킬 수 있는
육성 마 사육사업 등 상호 의견
나눔

한국인의 체형에 맞는 말은 서구형 말보다는 몽골형 말이 더
안전하고 우수하다는 의견



□ 이태준열사 기념관

연세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한 이태준 열사는 일제억압에 못 이겨 김규식의 소개로 독립운동을 하기위해 몽골로 피신하여 운동하면서 몽골에서 의료원을 개설하여 주민들에게 의료봉사와 정신 계몽 운동을 전개한 공로로 몽골 정부로부터 시민의 우상이라는 칭호와 함께 “에르데넨오치르”라는 최고의 훈장을 받았으며, 그 후 몽골정부 독립하기 직전에 공산당원이 주민 학살시 피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음.



추모비에서 추모의 묵념을 올리고 있음

Ⅲ. 결 론

- 해외연수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관광성 외유라는 비난을 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무조건 왜곡해 버리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

요즘처럼 급변하는 세계화 글로벌 시대에 내 것만 알고 고집한다면 어찌 발전이 있겠는가? 남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다.

- 우리시 의회에서는 시정과 시민을 위하여 많은 도움이 되리란 확신을 가지고 의원 8명과 직원 4명은 우리시 승마장 건립과 말(육성)관련 사업 시행에 앞서, 말사육의 전통성이 있는 중앙아시아 몽골지역의 친환경 농축산업 정책과 승마장 관련시설을 비롯한 교육, 문화 관광, 축산 분야 녹색정책 등에 대한 사례를 몸소 체험하여 향후 의정활동 및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 수집과 비교 견학을 위하여 4박6일의 일정으로 몽골을 방문하였다.
- 우리나라의 60~70년대를 연상하게 하는 몽골의 모습들에서 현재 발전한 우리나라의 모습을 한 번 더 그려 보며, 우리국민이 참으로 훌륭한 민족이라는 것에 가슴 뿌듯한 자부심을 느꼈다.
- 조국을 떠나보면 모두가 애국자가 된다고 했다. 이번 해외연수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 예부터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고 했는데, 국제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는 후진국 이지만 말(馬)에 관해서는 그 어느 나라보다 전통이 있는 나라가 바로 몽골이다.
- 우리남한의 약 14배나 되는 광활한 국토, 풍부한 천연자원들, 우리가 그랬듯이 그들에게서도 얼마든지 발전의 가능성이 보였다.
- 구미시의회를 친구의 자격으로 환대해준 울란바토르 시의회 의장 및 시청 관계자, 국제적인 대학 수준의 교육을 지향하는 몽골최대의 사립대 울란바타르 대학교를 운영하는 최기호 총장, 울란바타르대학교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대국으로서의 발전 할 수 있는 지도자의 리더십과 새마을 운동을 주제로 열띤 강의를 한 윤종호의원의 특강, 승마 대국답게 부총리가 마사 협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울란바타르 마사협회, 울란바타르에서 아니 몽골에서 최고인 그들에게서 최고의 노-하우를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승마사업은 선진국에서도 선호하는 레저스포츠사업으로 알려져 가고 있기에 구미시의 승마사업은 시민들의 여가생활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며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시의 성공적인 승마사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 승마사업 세계 제일의 울라바타르시와 친선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협력함으로써 구미시의 승마사업 발전에 큰 계기가 될 것이다.